

# OVC EXPO 2008



## OVC EXPO 2008 전시회를 참관하고....

2008 중국무한국제광전자박람회(이하 'OVC EXPO 2008')는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중국내 광산업 관련 전문 전시회중 하나로, 중국 무한 동호신개발구가 주최하고 중국 무한과학기술전시컨벤션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올해 6회째 전시회로써, 올해는 예년 10월말에 개최되는 것과는 달리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금번 OVC EXPO 2008전시회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0개 회원사로 구성된 공동참가단(12개부스) 및 광산업 수출 및 OEM 생산협력 조사단(단장 :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영복)을 구성·파견하여 국내 광산업체의 중국내 수출 판로 개척, OEM 생산협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2008 국제광산업전시회,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국관(공동참가단)에 참가한 국내 광산업체는 올해 OVC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총 107건에 걸쳐 상담액 3,094만불, 계약의향액 1,902만불의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을 거두었다.

또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중국 무한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중국 무한동호신개발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 하여 양국의 광산업 협력 방안, 양국 광산업 국제행사(국제광산업전시회,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등)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전 영 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OVC EXPO 2008 공동 홍보단 구성 및  
광산업 수출 및 OEM 생산협력 조사단 파견...

2008 중국무한국제광전자박람회(이하 'OVC EXPO 2008')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6회째인 중국내 광산업

관련 전문 전시회중 하나이다.

중국 무한 동호신개발구가 주최하여 중국 무한과학기술전시컨벤션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OVC EXPO는 예년 개최시기(10월말)와는 달리 금년에는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 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금번 OVC EXPO 2008 전시회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예년과 같이 중국내 광산업체 판로 개척 및 국내 광산업제품 홍보 등을 위해 90m<sup>2</sup> 규모 독립부스 형태로 공동참가단(10개업체 참여)을 구성하여 한국관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홍보 및 2008 국제광산업전시회,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올해 OVC EXPO 2008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총 107건에 걸쳐 상담액 3,094만불, 계약 의향액 1,902만불의 수출 상담 및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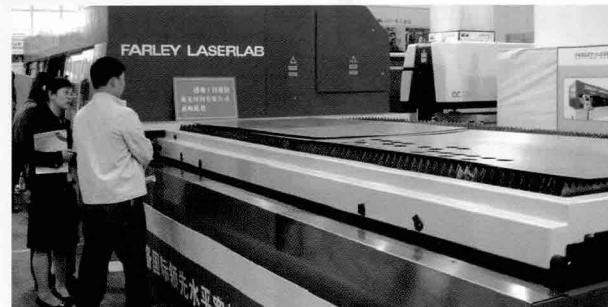
구분 계	업체명	대표자	부 스 운영자	지역	회원사	전시품목
10개업체, 1개기관					10	
1 글로벌광통신(주)	박인철	서재연 팀장	광주	O	광케이블	
2 (주)링크라인아이엔씨	김상기	양재창 과장	광주	O	조명용 고출력 LED등	
3 (주)옵테론	신권식	유창민 과장	광주	O	Fiber Array	
4 우리로광통신(주)	김국웅	신양수 이사	광주	O	WDM/DWDM등	
5 (주)휘라포토닉스	문종하	최용 이사	광주	O	광분배기 Splitter등	
6 (주)파이버프로	고연완	최재복 이사	대전	O	AFCID, PMD등	
7 (주)해빛정보	박병선	박병선 사장	대전	O	Grating, IR filter등	
8 (주)캠옵틱스	이형종	노영우 이사	대전	O	Optical Switch등	
9 동우옵트론(주)	김영준	김동현 이사	경기도	O	광전환기, 분광기등	
10 (주)웨스텍인터내셔널	김재옥	김재욱 사장	서울	O	광관련 제품 마케팅	

〈표1〉OVC EXPO 2008 한국관 참가업체 명단

OVC EXPO 2008 전시회 기간 중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자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광산업 수출 및 OEM 생산협력 조사단(단장 :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영복) 파견하여 중국내 주요 OEM 생산협력 타당성 조사 및 광산업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OVC EXPO 전시회 185개사 참가 300여개 부스 규모.. 예년에 비해 질적 규모 다소 감소한 느낌...

OVC EXPO 2008 전시회는 올해 185개 기업 300여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 것으로 분석되며, 전시회 기간 동안 참관객수는 20,000여명인 것으로 전시회 주최 기관인 중국



무한 동호 신개발구는 밝혔다. 그러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시회 참가업체 및 참관객 규모였으나, 전시회 전체적인 바이어 방문자수, 거래건수, 방문 참관객 부류 등 전시회 질적 규모 면에서는 다소 감소한 느낌을 받았다. 이는 전세계 IT 및 광관련 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전시회의 참가 분위기(동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초에 개최한 일본 FOE 2008등 전시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질적 규모 감소)를 염볼 수 있었다.

OVC EXPO 2008 전시회 주요 동향 등을 살펴보면, 올해 전시품목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광통신부품 및 LED응용제품, 레이저 장비(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절단기 등), 광계측장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예년과는 달리 태양광관련업체들도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 OVC EXPO 전시회 행사 기간중 한국과 대만 기업에 많은 관심...

참가 국가 구성은 중국 기업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고, 해외 기업 참가 현황은 한국기업 10개사를 비롯하여 러시아 7개사, 독일 3개사, 이탈리아 4개사, 뉴질랜드 1개사, 대만 5개사, 일본1개사, 미국 1개사, 홍콩 1개사가 참가하였다.

금년 전시회에 참가한 메이저급 기업으로는 ZTE, Alcatel-Lucent, FiberHome등이 독립 부스 형태로 전시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참관객들은 주로 중국 내 참여업체 중 광통신부품과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 제품과 대만의 고출력 LED업체,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LED LaNew Technology Corp 등 대만 업체의 고휘도 LED응용제품(가로등, 경관조명 등)과 FARLEY LASERLAB, LASER VARIO RAKURS 등이 선보인 중대형 레이저 가공 장비에 많은 참관객이 관심을 보였다.

전시 참가업체 중 Foxconn, SENKO Group의 경우 수준 높은 광통신 부품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Sunlike Display

Tech.Corp, LED LaNew Technology Corp 등은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대형 전광판을 선보였다.

전시회 주최기관에 따르면, 금년도 전시회 때 전시회 참가업체 및 참관객들은 한국과 대만 공동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7회 OVC EXPO 행사는 2010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중국 무한시 부시장 및 동호신개발구 관계자의 양국 광산업 협력방안 논의....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광기술원 유은영 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중국 무한시 부시장 및 동호신개발구 관계자와 양국 광산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번 논의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중국 무한동호신개발구간 2003년 체결한 MOU이후 지난 5년간 교류를 더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금번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국 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 및 중국 측에서 실무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 전시회 현황 및 중국 광산업 시장·기술 동향

구성하여 양국 협력방안(인적교류 및 기술교류 등)을 마련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아울러,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중국 무한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 요청과 함께 2008국제광산업전시회 및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에 많은 중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중국 무한시측에서 2008국제광산업전시회 뿐만 아니라,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에 중국측 대표단(기업 포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중국 광산업 주요 분야별 시장 및 기술 현황...

## 중국 브로드밴드가입자 규모 세계 최대

최근 첨단산업인 광산업 분야에 후발주자인 중국이 광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광통신 시스템 및 부품분야 등에서 한·중업체간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치열한 경합구도가 지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중국(中國)의 광산업(光產業)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성(省)과 시(市)차원의 다차원적인 육성전략(育成戰略)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하이테크 시장중 하나로써, 이러한 정책적(政策的) 지원(支援)과 투자환경(投資環境) 그리고 소비시장의 우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광산업 시장은 연간 성장률(成長率)을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광산업을 위주로 하는 무한광전자산업단지(武漢·光谷)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이며 중국 내 가장 성공적인 클러스터 모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무한 광전자산업단지(武漢·光谷)는 중국 국내의 상장회사와 대그룹뿐만 아니라 Motorola, Nokia등 세계 500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통신, LED 등 광산업 분야는 전세계 시장 중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 및 대규모 투자 등의 원인과, 2003년 전후로 전 세계의 IT 및 광산업체의 업계재편 등을 통한 광산업 시장 회복세에 접어들은 상황, 2008년 북경올림픽 및 2010상해도시엑스포 등 중국내 특수 상황 등의 영향으로 향후 몇 년 중국내 시장 규

모는 많은 수요와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광산업 주요 분야별로 시장 및 기술 동향은 다음과 같다.

## [광통신 분야]

중국의 FTTH 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내 업체들이 뒤떨어져 있는 분야(Polymer, PLC)의 시장의 확대와 원천기술 제품들의 수요가 중국시장에서 시장을 크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통신시장 중 한국에서 수입되는 광섬유중 59%(약 1,570만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국가별 수출비중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입액	64,095	34,245	10,419	7,679	10,319	24,834	26,225

〈표2〉 우리나라의 광섬유 수입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http://www.kita.net))

## 〈그림 1〉 우리나라의 광섬유 주요 수입국 현황(2006년)

중국내 Broadband 가입자 시장은 2007년 기준 68백만달러(USD)로 약 한화로 68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중국의 FTTH(액내광가입자망)는 상업용 개발에서 점차 SOC급 대규모 개발추세로 변환 중임.

※ 중국광산업동향이 「제4호 광산업기술·시장동향분석정보 보고서」에 이미 배포 되었으므로 자료를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webmaster@kapid.org](mailto:webmaster@kapid.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